

‘우선 회원사 확대에 역점둘 터’

한국포장기계협회
정완용 회장



지난 10월 12일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정식 출범되었다. 그렇고 그런 단체가 또 하나 생겼다는 정도로 치부하는 축도 있겠지만 업계를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또한 포장산업 역사의 역동성을 생각한다면 협회 출범의 의미는 작지 않다. 초대 회장에 추대된 동성포장기계 정완용 회장은 그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동종 업체간 결속과 공동 권익을 도모하는 것이 일차적인 협회의 역할이겠지요. 좀더 크게 보자면,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든 국제무대에서 국내 포장기계제조업의 세계화를 견인하는 몫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국내 자동포장기 메이커의 선두주자로 동종 업계에서 굵직한 획을 그어온 것은 물론 신기술(NT) 마크 획득 등 국제무대에서 선진업체와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기반을 닦아온 정완용 회장이 ‘국제화’를 운위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국내 포장기계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도 적지 않다. 요컨대 기술 복제라든가 덤핑 경쟁, 부당 인력 스카웃, 첨단기술 개발 및 국산화에 대한 투자의 미흡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협회가 태동되었던 바, 사실 그 시작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 우려의 목소리는 홍보능력이라든가 창립 회원업체 등의 면면이 협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 나가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함량미달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 회장도 이러한 지적을 충분히 듣고 있는 듯하다.

“물론 포장기계협회 출범이 완전한 조건이 구비된 속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배제했다든가 홍보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고,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일단 협회를 공식적으로 떠난 다음에 해결해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흡한 대로 깃발을 든 것입니다. 요컨대 협회가 발족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왕 우리 업계에 내재해 있는 여러 문제점을 공동으로 해결해보자는 데에 협회의 존재가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정 회장은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도 일단 협회 내부로 들어와 공동의 길을 모색해주길 바랐다. 아울러 협회의 최우선 과제로 회장단이 우선 가입대상 업체를 방문해 동참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릇 모든 단체가 파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일정한 누림을 얻기 위해서는 저변을 확보하는 게 일차적 관건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심부름’을 위해 남보다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포장기계협회가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